



# 대한민국을 수출합니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

국산 경전투기 FA-50

## 국내 항공업계 최초,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으로  
국가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견인한 KAI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 Fly Together

2017 APRIL Vol.208

www.koreaaero.com



Monthly Issue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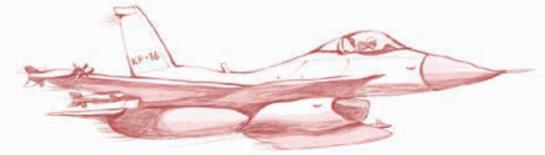


KAI 패밀리

아부지 "Fly Together"  
아들아 "Happy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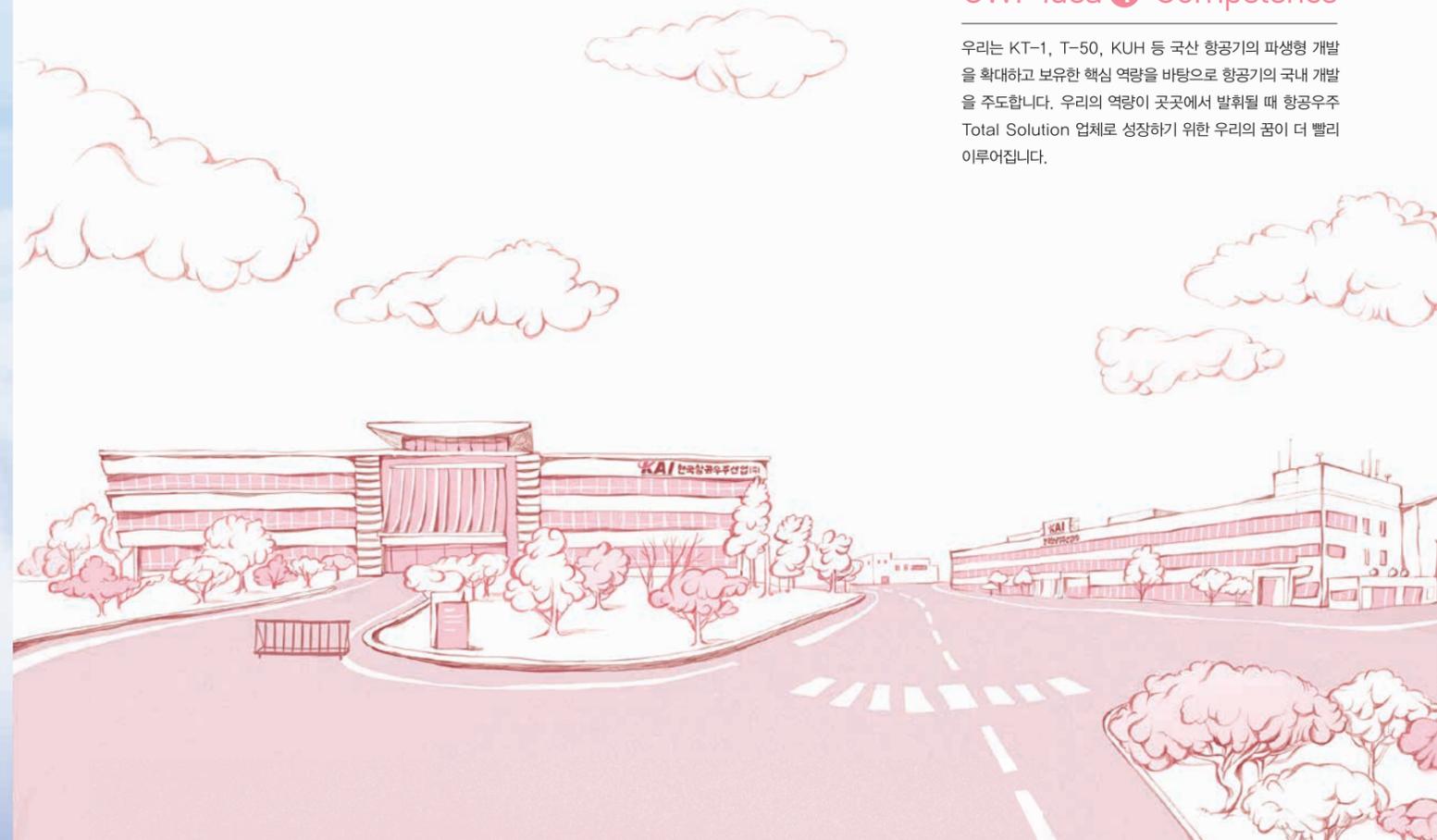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 GWP Idea 4 Competence

우리는 KT-1, T-50, KUH 등 국산 항공기의 파생형 개발을 확대하고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기의 국내 개발을 주도합니다. 우리의 역량이 곳곳에서 발휘될 때 항공우주 Total Solution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꿈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 2017년, 더 큰 꽃을 피우기 위해 새롭게 나아갑니다



4월의 하늘은 언제나 맑음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꽃망울이 툭툭 터져 나오며  
한바탕 봄 잔치를 벌이게 되겠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만개한 봄꽃을 보면  
저 가녀린 가지 속에서  
어떻게 차디찬 겨울을 버텨냈는지  
애뜻한 마음마저 듭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낸 만큼 더 화려한 자태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봄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개할 수 있는 것도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고 다져온  
KAI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번 달 'KAI 히스토리'에는 2003년과 2004년 동안  
KAI인들이 피워낸 성공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과 KFP의 마무리 등  
굼직한 성과 뒤에 점철된 KAI인의 노력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의 해답을 찾는 건 어떨까요.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2017년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대응

# Contents

www.koreaaero.com  
APRIL 2017 / Vol. 208



웹진 (Fly Together)  
QR코드

발행일 2017년 4월 5일(통권 208호 · 4월호 · 비매품)  
발행인 하성용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담당자 배화윤 차장(055-851-9485)  
제작대행 디자인신화(02-324-6652)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전자윤리강령 및  
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여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하나 된 KAI  
24



더 강한 KAI  
04



행복한 KAI  
32

- 24 **함께 생각해요**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역량을 개발하라  
Competence
- 26 **KAI 특특**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요?
- 28 **글로벌 스토리**  
새로운 역량 개발로 위기 극복하는  
변신의 귀재 IBM
- 30 **KAI 캠페인**  
작은 노력으로 업무 역량 강화

- 04 **Monthly Issue**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05 **CEO 동정 & News Focus**  
중간관리자 대상 CEO 소통 간담회 실시 외
- 10 **KAI 히스토리**  
성공의 기억이 더 큰 승리를 부른다
- 14 **KAI 특집**  
Part 1 - 新 가치체계 정립 위기관리 시리즈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新 가치체계를 이야기하다
- 18 **역사 속 항공인**  
전익기 개발의 선구자 잭 노스롭
- 20 **Fly News**  
에어버스, 하늘과 땅에서 달리는 '드론카' 공개 외

- 32 **사회공헌**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 34 **KAI 패밀리**  
아부지 "Fly Together"  
아들아 "Happy Together"
- 38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바다로 나오니 산이 보이네
- 40 **나의 여행 이야기**  
지구 한가운데 광활한 자연
- 44 **세대공감 KAI**  
관찰아 만우절이잖아
- 48 **문화 광장**  
봄과 함께 들려온 공연 소식

## Monthly Issue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3월 24일 예비에이선센터에서 제18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의장인 하성용 사장이 주관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는 최대주주 등이 참석해 제18기 재무제표 승인과 주식 1주당 680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7% 증가한 3조1,007억 원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 이익은 10% 증가한 3,15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86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해 48%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한 5명의 이사 중 사외 이사로 김태영, 이동호, 이팔성 3명을 선임하고, 선임된 3명의 사외 이사 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주주 중시의 책임경영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EO 동정 & News Focus



### 중간관리자 대상 CEO 소통 간담회 실시

3월 14일 팀장, 3월 27일 직·조장을 대상으로 CEO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매년 열리는 'CEO와 함께하는 공감·소통 간담회'는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다. 하성용 사장은 새로운 비전 4.0의 정립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선순환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할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당부와 이를 위해 "조직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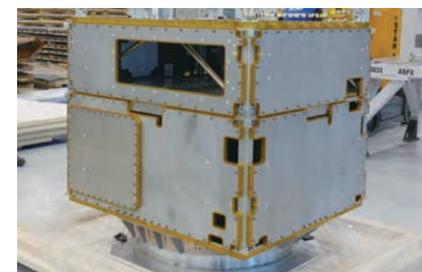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한 디딤돌인 APT사업은 수주를 위해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핵심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간관리자들은 "하성용 사장님의 당부와 같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APT 사업 수주와 주요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반드시 글로벌 항공업체로 도약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 에어버스와 3,800억 원 규모 수주 계약

2월 28일 에어버스와 3,8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 맺은 수주 계약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럽 에어버스와 항공기 A320 날개에 들어갈 날개 상부 구조물(WTP, Wing Top Panel)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어버스에 공급할 날개 상부 구조물은 항공기 주날개의 표면과 이를 지탱하는 뼈대로 이뤄진 내부 구조물이다. 날개 상부 구조물은 2001년 에어버스와 최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해서 생산 물량을 확대해왔다. 현재 항공기 A320 판매 물량의 40% 이상을 우리 회사가 책임 지고 있다.



### 차세대중형위성 1호 구조계 STM 납품 완료

2월 28일 차세대중형위성 1호 구조계 STM(열구조 모델, Structure Thermal Model)의 조립이 완료되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납품되었다. 지난 2015년 9월 4일부터 KARI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공동설계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중형 위성(500kg급) 표준 플랫폼 공동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STM, FM(비행 모델, Flight Model)으로 구성되면 FM은 2018년 2월에 납품될 예정이다.



### LAH/LCH KAI-AH간 사업관리자회의 실시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LAH/LCH사업에 관한 사업관리자회의(PMR)가 우리 회사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공동개발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H)의 한국 사업 책임자와 우리 회사 LAH/LCH 개발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올해 LAH/LCH사업 핵심 목표인 LCH 시제1호기 최종조립 착수(12월)와 LAH 체계 CDR 적기 수행(10월)을 위해 개발·생산·사업 분야별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일정은 2017년 1차 경영자간회의(ERM)가 오는 5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본사인 프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KF-X 인도네시아 참여 인력 한국 문화 체험

3월 9일 인도네시아의 PTDI 엔지니어 15명과 그 배우자 7명이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웰스토리에서 주최하는 쿠킹클래스에 참여했다. 이들은 KF-X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다.

쿠킹클래스에서 체험한 요리는 닭볶음탕이다. 닭볶음탕은 이슬람교 계율에 따라 도축(할랄)된 닭고기를 매운 고추장 소스로 볶아 만들었으며, 닭고기와 매운맛을 좋아하는 인니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닭볶음탕 요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PTDI 엔지니어와 그 가족들은 “낮선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요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 건강 증진 프로그램 '건강 UP 뱃살 DOWN' 업무 협약

3월 10일 사내 건강 증진과 체력 증진,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천스포츠클럽, 사천시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UP 뱃살 DOWN'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 및 건강 생활 실천으로 심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표로 한다. 키, 몸무게, 배 둘레, 혈압, BMI, 기초체력검사, 혈액검사(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사전에 실시한 후 운동 프로그램과 식이 조절, 교육이 진행된다. 측정 후 8주 뒤 검사에서 체중 5% 감소와 사전 검사 결과의 변화 비교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에게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KAI 나눔봉사단

3월 사회공헌활동



### 내일을 여는 집에 심리치료 봉사활동

3월 11일 KAI 나눔봉사단은 풀뿌리 봉사활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의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위한 아로마 비누 만들기를 진행했다. 내일을 여는 집에는 현재 약 35명 정도의 피해여성과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내일을 여는 집 사무국장은 “아로마 비누 만들기로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행복을 주었고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비누를 서로에게 선물하고 과자도 나눠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 성남두레복지원에서 힐링음악회

3월 18일 노인요양시설인 성남두레복지원에서 생활인 50여 명과 함께한 힐링음악회가 열렸다. 힐링음악회는 재능분과 봉사단원과 KAI 풍물동아리 '민예'가 참여해 삼도 사물놀이, 색소폰 연주, 난타,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재능기부가 펼쳐졌다. 성남두레복지원 어르신들은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입 모아 이야기했다.

재능분과 봉사단원은 오는 4월에 주사랑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할 계획이다.



### 당사 인근 마을숙원사업 봉사활동

3월 25일 사천시 축동면 신기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나눔봉사단 50여 명이 모여 느티나무&만나루 마을 길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마을숙원 프로젝트 기증식도 열었다.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우리 회사 인근 지역 마을을 선정해 마을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프로젝트다. 후원 마을(용당1리, 용당2리, 유천리, 정촌 대초마을, 구암3리 토촌마을, 축동 신기마을, 사남 조동마을, 축동 배춘마을)에는 전자제품·건강기구 후원과 마을 길 조성 공사, 전기 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2017 나눔봉사단 모집

2016년 3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 후원부터 마을숙원사업, 1사 1하천 환경 정화, 전통문화 후원, 인도네시아 해외봉사, 사랑의 난방 KIT, 김장 나눔까지,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구슬땀으로 범벅되어도 나눔봉사단원들의 입가에는 연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2017년, 동료와 함께 KAI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나눔봉사단과 함께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을 기다립니다.

### 가입방법

- ① 게시판
- ② 알림방
- ③ KAI 나눔봉사단 폴더
- ④ 봉사단 가입안내 클릭



10  
KAI 히스토리  
성공의 기억이 더 큰  
승리를 부른다



14  
KAI 특집  
Part 1 - 新 가치체계  
정립 위기관리 시리즈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新 가치체계를 이야기하다



18  
역사 속 항공인  
전익기  
개발의 선구자  
잭 노스롭



20  
Fly News  
에어버스,  
하늘과 땅에서 달리는  
'드론카' 공개 외

## Section 1 더 강한 KAI

찬란한 역사가 있기에  
내일의 태양이 더 밝게 떠오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KAI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2003년 2월 19일, T-50이 4만 피트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에 나서는 모습.

월드컵과 T-50 초도비행의 열기에 휩싸였던 2002년을 뒤로하고 2003년이 새롭게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고 경쟁은 더 치열했다. 경영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장함과 성숙한 기업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함께하자는 다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T-50 초도비행 성공의 기쁨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자신감으로 승화되었고, 2003년부터 시작되는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2004년 마무리되는 KFP사업의 성공은 희망으로 가는 KAI인의 발걸음을 더 빠르게 재촉했다.

기획 배화운 차장 글 김희정

# 성공의 기억이 더 큰 승리를 부른다

## T-50 항공기 초음속 돌파 성공

모두의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초도비행을 마친 T-50이 2003년 2월 19일, 드디어 고도 4만 피트(약 1만 2천 미터)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내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T-50은 마하 1.05(초속 360 미터)의 초음속으로 비행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12번째 초음속항공기 개

발 국가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초음속 돌파비행을 마친 공군 이충환(공사 35기) 소령은 "T-50은 마하 1.0을 돌파할 때 기체의 이상 진동이나 흔들림 없이 아주 양호한 비행능을 보여줬다"며 "설계 목표인 마하 1.5 돌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는 "T-50은 고도의 디지털 비행제어

### 연재 순서

- ① 2000년 \_ KAI, 새롭게 비상하다
- ② 2001년 \_ 세계를 향한 희망의 발견
- ③ 2002년 \_ 자부심의 기억 그리고 희망
- ④ 2003년~2004년 \_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의 태동
- ⑤ 2005년~2006년 \_ 대한민국 공군력에 날개를 달다
- ⑥ 2007년~2009년 \_ KAI, 세계를 호령하다
- ⑦ 2010년 \_ 수리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다
- ⑧ 2011년 \_ 도약의 시기, 더 높이 나는 KAI
- ⑨ 2012년 \_ 항공우주산업을 이끈다
- ⑩ 2013년 \_ 수리온 시대의 개막
- ⑪ 2014년 \_ 새로운 기회, 페루를 만나다
- ⑫ 2015년~2016년 \_ 희망의 결실, 또 다른 시작



비행에 성공한 조종사가 T-50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스템과 엔진, 견고한 기체 및 착륙 장치를 갖춰 훈련기 중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극찬했다. 당시 초음속 돌파비행은 2002년 8월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 이후 2대의 항공기로 6개월간 총 60여 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T-50 항공기의 각종 항공 전자장비, 계통, 기체구조, 비행 작동성, 안정성 및 조정성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을 거쳐 시행된 결과였다.

T-50은 이어 2003년 4월 100회 시험비행을 마치고, 5월 12일 1차 내구성 시험을 완료하며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04년 7월에는 무사고 비행시험 500회를 돌파했다. 신규 개발 항공기의 기본 비행성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면서 T-50은 비행시험 단계에서 공격기의 임무 수행을 검증하는 상위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T-50은 당시 공군의 요구 성능과 사업 일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호령할 날을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었다. T-50 개발을 통해 KAI는 개발과 양산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해외 항공업계에서 K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당당히 어깨를 나

란히 하며 경쟁자로서 위상을 갖춘 KAI, T-50은 KAI인의 자부심에 날개를 달아줬다.

## KT-1B,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다

KT-1의 성공은 T-50 성공의 기폭제가 되었다. 개발 주체가 달라 개발 과정의 노하우가 공유되지는 못했지만, KT-1의 개발은 T-50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T-50과 KT-1은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시너지를 낸 것이었다.

2002년 12월 진행된 인도네시아 수출 1호기 KT-1B의 초도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듬해인 2003년 7월 14일, KT-1B의 1, 2호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인도되어 조종사 양성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 인도식은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 훈련 기지가 있는 족자카르타에서 열렸고,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현지 국방부 관계자와 공군 조종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KT-1B의 인도식이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 훈련 기지가 있는 족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 KT-1B,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해외(인도네시아) 수출

2003년 KT-1의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항공기 수출 업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2사업장에서 열린 KT-1B 수출 1호기 출하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KT-1B를 직접 시승하고 있다.

KT-1B는 KT-1의 파생 기종으로 인니 공군의 특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지 항법 및 통신 운용 환경에 맞춰 개조 설계된 항공기다. KT-1B 수출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항공기 개조 설계 및 생산능력이 대내외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KT-1B 1, 2호기에 이어 수출 계약분 7대 전량과 수리부속품, 기술교범, 조종사·정비사 교육 등 항공기 운영체계까지 인도네시아에 인도하게 되었다. 7월 인도식에 이어 9월 8일에는 KT-1B 최종호기가 인니 공군에 인도 완료되었다.

**KT-1,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2004년에도 KT-1은 순항을 이어갔다. 2004년 1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본비행 교육용 항공기가 KT-1으로 모두 교체되었고

같은 달 KT-1은 시험비행 500시간을 달성하기도 했다. 5월에는 KT-1의 최종호기 비행시험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KT-1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2000년 7월 초도 시험비행 이후 총 486쏘티, 549시간의 비행을 수행했으며, 시험비행을 위해 시험비행조종사 14명, 비행시험 기술사 11명이 참여했다. 지구 5바퀴를 비행한 거리인 197,640km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항공비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게 된 것.

6월 23일에는 KT-1 최종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다. 1988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16년 만의 일이었다. KT-1의 최종호기 출하 기념식에는 그동안 KT-1사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수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10여 년의 개발 과정과 6여 년의 양산 단계를 거치는 동안 쏟았던 KAI인의 헌신과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KT-1 개발을 통해 KAI는



KAI 임직원이 KT-1 최종호기 비행시험을 완료한 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항공기 제작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더 강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 전력화에 일익을 담당한 것도 뜻깊은 성과였다. KAI인의 자부심이 되었던 KT-1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터키, 페루, 세네갈에 수출되며 세계 무대에서 KAI를 알리고 있다.

**KFP, 성공이라는 마침표를 찍다**

2004년 8월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군 전력증강사업이었던 '한국형전투기사업' (KFP, Korean Fighter Program)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본사에서 공군을 비롯한 정부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등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최종호기 출하 기념식이 열렸



본사에서 공군과 정부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F-16 최종호기 출하 기념식이 열렸다.

고, 이 자리에서 KF-16 전투기 000호기가 공군에 최종 인도되었다. 1991년 사업에 착수해 2000년까지 KF-16 전투기 000대를 생산한 KFP 1차 사업과 이후 00대를 추가 생산하는 KFP 2차 사업이 모두 종결된 것.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이란 총 000대의 KF-16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국내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군의 항공전력 증강'과 동시에 '국가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한 모범적인 무기 도입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의 개발 성공도 바로 KFP를 통해 축적한 선진기술이 바탕이 되었다. KFP의 경제적 효과도 고무적이었다. 4천여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이 동원되었고, 1조 원에 달하는 시설 및 장비 투자, 100여 개 협력업체 확보 등 항공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국내 생산 체계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것. 이로써 KAI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4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한 KAI는 잇따른 사업 성공으로 승승장구해 가고 있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 직원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았던 시간. '성공'이라는 두 글자에 모두 담지 못하는 KAI인들의 땀방울이 오늘의 KAI를 있게 한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면 늘 좋았던 기억만 남지만, 사실 위기의 순간은 어느 때나 있었기 마련이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 뒤에 숨어 있는 KAI 선배들의 노력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공의 기억은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명쾌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본 칼럼에 소개된 내용은 2003~2004년 사보 <KAI>에서 발행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新 가치체계를 이야기하다

비전 4.0이 선포되었다. 때마침 매출 3조 원 시대가 열리며 비전 달성을 향한 순조로운 비상이 시작되었다. 2030년 매출 20조 원, 세계 6위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나아간다는 새로운 비전이 발표되며 KAI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차기 고등훈련기사업(APT) 수주까지 성공하면 글로벌 방산업체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하지만 삼폐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에 KAI는 전 임직원의 염원을 담은 新 가치체계를 선포하였다.

기획 배화운 차장 글 김희정

### 2017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17년의 행보에 KAI의 미래가 달렸다. KAI는 올해 미 공군 APT사업 수주, 수리온 해외 시장 개척 등 원재료 수출 확대와 MRO사업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KF-X, LAH/LCH의 순조로운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 지난해에는 KT-1 기본훈련기의 세네갈 수출로 대륙별 수출 거점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에어버스 A320 날개 상부 구조물의 제작 수주를 이뤄내며 2017년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KAI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경영실적 대비 수주 실적의 저조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여겨진 탓이다. 국내 유일의 항공업체라는 지나친 자신감에 대한 우려도 있다. KAI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이유다. 굵직한 사업 앞에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재점검에 나서야 하는 때다.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재도약에 나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2017년 APT사업 수주는 갈림길에 선 KAI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매출 20조의 글로벌 항공산업 대표 주자가 될 것인가, 매출 3~4조의 평범한 회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퇴보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성공을 이뤄낼 열쇠를 KAI는 바로 일류 기업문화 구축에서 찾았다. 위기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위기 극복을 함께 다짐하는 것. KAI는 이러한 공감을 위해 新 가치체계를 수립, 공유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Fly Together>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KAI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기업의 스토리를 통해 K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 연재 순서

#### Part 1 新 가치체계 정립 위기관리 시리즈

- ① KAI 중장기 비전 4.0과 新 가치체계
- ② 위기관리 경영에 성공/실패한 기업사례(기술 집약 부문) I
- ③ 위기관리 경영에 성공/실패한 기업사례(마인드와식 부문) II

#### Part 2 신세대 시너지 제고 시리즈

- ① 기업사례 I – 젊은 직원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다
- ② 기업사례 II – 신구세대가 성공적으로 융합한 기업
- ③ 기업사례 III – 책임감과 오너십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한다

#### Part 3 동종업계 사업 전략 및 기업문화

- ① 항공우주산업 세계 1위 보잉
- ② 항공우주산업 세계 2위 에어버스
- ③ 항공우주산업 세계 3위 록히드마틴

###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완성한 新 가치체계

가치체계란 기업의 존재 이유를 바탕으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의식 기준과 행동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1999년 창립한 KAI는 2002년 기업문화를 선포하며 창립 이후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3사 문화의 물리적 통합을 최대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기업문화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2017년 새롭게 정리된 가치체계는 현재 KAI가 당면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담아 탄생했다.

가치체계는 조직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KAI는 임직원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도 조사를 했고, 전사 워크숍을 통해 가치체계 개선 방향과 구성 요소별 의견을 협의했다. 정립 안에 대해 실무자와 팀장, 실장, 본부장의 의견 반영 후 최종 후보안에 대한 전사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新 가치체계가 탄생했다. 다시 말해 KAI의 新 가치체계는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新 가치체계의 출발은 바로 '비전'이다. KAI는 2013년 수립한 '2020년 매출 10조, 세계 15위 항공우주업체 도약'이라는 비전 3.0이 수출 및 신규사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유로, 비전 4.0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비전 4.0은 바로 '2030년 매출 20조 원, 세계 6위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이다.

비전 4.0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실천 의지가 강하다는 것. '지속적 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율경영 인프라 구축', '일류 기업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7년 말에는 APT사업, MRO 지정 결과를 반영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새로운 사명 아래 '고객에 대한 신뢰와 존중', '기술에 대한 도전과 혁신', '협업을 위한 소통과 화합'이라는 핵심 가치는 KAI만의 기업문화 정체성 구축을 위한 의식이자, 행동양식이다.

KAI는 新 가치체계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인드 혁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8주에 걸쳐 이뤄지는 이 과정은 '위기 인식', '위기 공감', '위기 극복 다짐' 등으로 이뤄졌다. 현재 경영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기 극복 주체를 자각한 후 실천 과제와 행동강령을 도출하는 순서다. 첫 번째 순서인 '위기 인식'은 현재의 경영 상황 공유를 통해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비전 4.0 등 중장기 전략을 이해하고, 사운이 걸린 APT사업 수주 실패 시 직면하게 될 미래 상황을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인 '위기 공감'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한 방향, 한뜻으로 마인드와 역량을 모으는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단계인 '위기 극복 다짐' 시간에서는 조직 단위 워크숍을 통해 실의 실천 강령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다짐결의문을 작성하여 실천 의지를 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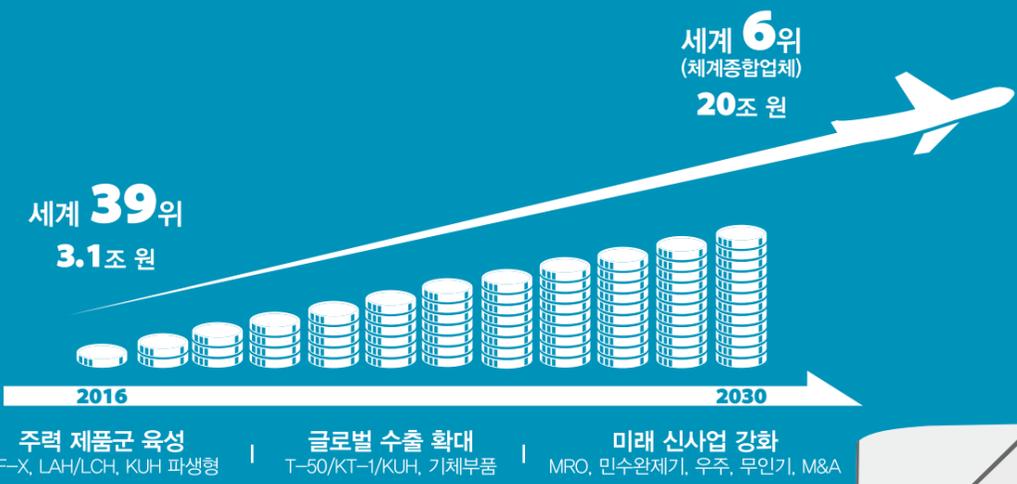
### 기업문화에서 답을 찾다

기업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 의식, 행동규칙, 집단약속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주는 신호등이다. 한두 명이 단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없는, 구성원 모두가 오랜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 만들어 가야 하는 조직의 성격이나 습관 같은 것이다.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그 안에 포함된 행동원칙은 KAI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KAI의 앞날에 켜질 신호등의 색은 KAI 구성원이 결정한다. 비전 4.0을 향한 그 여정의 닻이 올랐다. 순항을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 新 가치체계도



# New Value System of KAI



## Total Solution Provider in Aerospace

비전

2030년 매출 20조 원,  
세계 6위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

### 전략방향

- 지속적 성장
- Global 경쟁력 확보
- 효율경영 인프라 구축
- 일류 기업문화 정착

사명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다

### 핵심가치

- 고객에 대한 신뢰와 존중
- 기술에 대한 도전과 혁신
- 협업을 위한 소통과 화합

### 전략방향

- 지속적 성장**
  - 핵심 전략사업화 성공
  - 사업다각화
  - 플랫폼 다양화
  - 민수 체제종합 확대
  - 중장기 목표 사업 선제적 수주 전략 수립
- Global 경쟁력 확보**
  - 전략적 제휴 확대
  - 신사업 연계 기술 로드맵 수립
  - 핵심 인력 확보
  - 선제적 R&D 확대
- 효율경영 인프라 구축**
  -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
  - ERP 선진화 및 고도화
  - 전사 운영체계 효율화
  - 지원 인프라 강화
- 일류 기업문화 정착**
  - 新 가치체계 내재화 추진
  -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을 통한 국민기업으로 성장

### 핵심가치

- 고객에 대한 신뢰와 존중**
  - 시장과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고객의 요청에 신속·정확하게 피드백 한다
  -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다
- 기술에 대한 도전과 혁신**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 제품과 기술에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한다
  - 프로 정신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협업을 위한 소통과 화합**
  -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적극적·주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 사명

####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항공우주분야의 핵심·독자기술을 연구·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 각자 전문성을 갖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 '고객에게 신뢰받고'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고객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물량 창출은 불가능하므로, 항상 고객을 존중하는 자세로 신뢰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사회적 존재의 하나로서,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 '글로벌 기업이 된다'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아야만 한다.

# 전익기 개발의 선구자 잭 노스롭<sup>1)</sup>

(1895. 11. 10. ~ 1981. 2. 18.)

이번 달 역사 속 항공사의 주인공으로는 세계적인 방위산업체 노스롭(Northrop)<sup>2)</sup>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초의 실용 전익기(Flying Wing) B-2 스피릿(Spirit) 스텔스 폭격기 개발의 초석을 다진 전익기 개발의 선구자 잭 노스롭(Jack Northrop)입니다.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Q. ‘전익기=잭 노스롭’이라는 공식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익기 개발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토록 전익기에 몰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공기역학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미익이 붙는 항공기의 후미부(Empennage)<sup>3)</sup>는 항력을 발생시키지만 하는 구조물이죠. 양력을 발생시키는 주익에 모조리 합쳐버릴 수만 있다면 최상의 항력 효율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는 엔진의 효율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항력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고, 결국 미래를 이끌 최적의 형상은 전익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최고의 피탐지성까지 갖는 것으로 판명됐으니 제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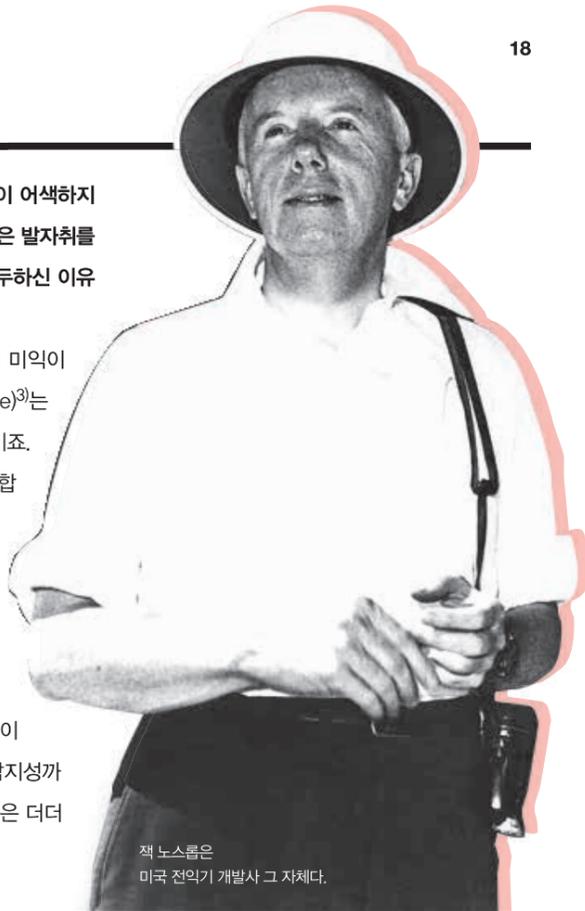
**Q. 회사를 설립하신 건 전익기 개발을 위해서였나요?**

A. 노스롭이 설립된 것은 1939년이지만 제가 세운 첫 회사는 에비온(Avion Corporation)입니다. 저는 1916년 록히드의 도면설계자로 일하면서 업계에 입문했고 더글러스(Douglas Aircraft Company)와 록히드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원래 항공기 설계에 관심이 남달랐는데 전익기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퇴사하고 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의 첫 전익기는 1940년에 처음 비행한 N-1M이었는데, 전익기의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자신감이 불더군요.

**Q. 꼬리 날개가 없으니 비행능이나 조종성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군 당국의 주목을 받았지 궁금합니다.**

A. 저의 개척정신에 시대가 화답을 해주는 듯했어요. N-1M이 첫 비행에 성공한 다음 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거든요. 전쟁이 격화되자 당시 미 육군항공대<sup>4)</sup>에서도 N-1M의 혁신적인 형상에 관심을 보였어요. 전익기는 어차피 기동성과는 거리가 먼 형상이지만 항속거리가 가장 중시되는 폭격기로서는 최적이었죠. 미국은 당시까지도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았지만 유럽 전장에서 최후의 보루였던 영국이 나치에 패배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본토에서 유럽을 직접 타격하는 폭격기의 존재가 절실했는데, 이 때문에 군이 주목했던 것이 제 전익기 프로젝트였어요. 미 육군항공대는 이른바 10×10 폭격기 프로젝트<sup>5)</sup>를 제안했고, 저는 이를



잭 노스롭은 미국 전익기 개발사 그 자체다.



노스롭이 개발한 전익기들. (아래부터) N-1M, XB-35, YB-49, N-9M

수락하면서 1941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실증기 개념의 기체를 먼저 만들어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1M의 크기를 크게 키우되 실제로 만들어지게 될 기체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만든 N-9M 4대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한 뒤 본격 시제기였던 XB-35 2대와 선행 양산형 격의 YB-35 13대를 만들었죠. 비록 XB-35가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이었지만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대의 요구 같았지요. “전익기 프로젝트를 빨리 완성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해 달라”라고 말이죠.

**Q. 노스롭 씨가 개발한 전익기 중 YB-49는 오늘날 B-2의 진정한 전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시대에 부흥했던 프로젝트가 왜 좌절되었습니까?**

A.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미 항공산업계에는 제트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죠. 그래서 YB-35 2대를 제트엔진으로 바꾸었고 1947년 10월 21일에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8대의 제트엔진을 장착한 YB-49의 성공적인 비행으로 제 꿈이 실현되는 듯싶었지요. 하지만 N-9M부터 불거진 불안정한 조종성 문제가 YB-49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전폭 52m에 최대이륙중량 88톤의 초대형 기체가 된 YB-49에 이르니 새로 장착한 제트엔진과의 부조화와 겹쳐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했던 조종성이 더 나빠졌죠. 개발비까지 치솟으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1948년 6월 5일 시험비행 중 추락해 승무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져 프로젝트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Q. YB-49 추락사고로 힘든 시간을 겪으셨겠네요.**

A.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YB-49를 정찰형으로 개조한 YRB-49 등 전익기의 잠재력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1950년 모든 전익기 프로그램은 취



1947년 10월 21일 첫 비행 순간의 YB-49. 40여 년 뒤 등장한 B-2는 YB-49와 전폭이 같다. B-2 개발에 초석을 놓은 YB-49를 기리기 위한 설계다.

소됐습니다. 게다가 전익기의 레이더 피탐지 특성이 극비에 부쳐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상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단 1대도 남기지 않고 남아있던 시제기 모두 폐기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깊은 회의감을 안고 업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시대를 앞선 개척자들이 겪는 시련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평생을 바쳤던 전익기가 그렇게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더는 제가 업계에 남아 무언가를 더 이루어 내야 한다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했죠.

**Q. 노스롭이 B-2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B-2의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았나요?**

A. 기본적으로 YB-49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나 설계자들이 B-2 개발 당시에는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많은 분이 고맙게도 YB-49가 B-2의 전신이라고 평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익기의 형상을 공유하는 점을 제외하면 YB-49와 B-2는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YB-49의 개발이 취소되었을 때 관련 기술과 데이터들 역시 모두 폐기처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B-2 개발팀에게 YB-49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록히드의 스텔스<sup>6)</sup>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항공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그 이상이 필요하죠. B-2 프로젝트 설계책임자였던 존 캐션(John Cashen)은 저의 개척정신과 YB-49를 기리기 위해 B-2의 전폭을 YB-49와 동일한 52m로 설계해 주었습니다. 캐션은 제 임종 직전 B-2의 초기 스케일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델을 보고서야 하나님이나를 지난 25년간 왜 살아있게 했는지 알겠다 싶더군요.<sup>7)</sup> 1988년 롤아웃한 B-2의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커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항공기 중 하나인 B-2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 그리고 후대의 많은 사람이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느낍니다.

1) 그의 이름은 본래 John Knudsen Northrop인데 이름과 마들 네임을 붙여 Jack이란 애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2) 현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의 전신.  
3) 수평미익과 수직미익을 포함한 항공기의 꼬리 부분.  
4) 공군의 전신.  
5) 10,000lb(4.5톤)의 폭탄탑재량과 10,000mile(16,000km)의 항속 거리를 갖는 폭격기 개발계획.  
6) 천재 엔지니어 켈리 존슨이 이끈 록히드의 사내 특수연구개발조직으로 U-2, SR-71, F-117 등 시대를 뛰어넘는 항공기를 만들어 냈다. 스텔스 워스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스텔스성이 뛰어난 F-117의 확장판 격의 기체로 노스롭과 경쟁했지만 패배했다.  
7) 실제로 그가 남긴 말은 "Now I know why God has kept me alive over the past twenty-five years"이다. 노스롭이 실제로 이 말을 남겼는지 진위에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캐션이 노스롭의 말을 전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Fly News



1

### 에어버스, 하늘과 땅에서 달리는 '드론카' 공개

에어버스가 하늘과 도로에서 모두 다니는 자율 주행 '드론카(Drone-Car)' 콘셉트를 지난 2월 7일(현지시각)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했다. 더버지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팝업(Pop.Up)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이 드론카에서는 자동차가 곧 드론이고 드론이 자동차다. 자동차의 탑승 공간을 드론으로 들어 올려 이동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승객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해도 자동차에서 나는 차로, 그리고 기차로도 갈 수 있다. 캡슐이라고 불리는 탑승 공간은 아래의 새시(차대)와 분리된다. 8개의 로터를 장착한 드론이 이 캡슐을 나른다. 승객을 내려주고 나면 차량은 자동으로 충전소로 돌아간다. 캡슐은 길이 2.5m, 높이 1.4m, 폭 1.5m이며, 드론은 가로 5m, 세로 4.4m 크기다. 에어버스가 공개한 비디오에서는 한 여성이 집에서 모바일 기기로 캡슐을 부른다. 이 여성은 차에 올라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거대한 드론이 캡슐을 들어 올려 목적지까지 간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 나올만한 팝업 시스템에 대해서 에어버스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2

### 호버서프, 드론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선보여

러시아 드론 개발사 호버서프(Hoversurf)가 날아다니는 전기 오토바이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0일(현지시각) 더버지 등 주요 IT 외신들은 호버서프가 날아다니는 전기 오토바이를 시연해 보이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호버서프가 선보인 제품은 오토바이와 드론을 결합한 '스콜피온-3'이다. 스크피온-3은 날개가 4개 달린 대형 드론에 탑승하도록 1인 좌석이 놓여 있어 날아다니는 전기 오토바이 모양과 유사하다. 호버서프는 이 제품을 '익스트림 스포츠 장비'라고 소개하면서 "아마추어나 프로 조종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스콜피온-3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작동 가능한 범위와 속도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했다"고 설명했다.



3

### 보잉, 3D프린터로 인공위성·우주택시 만든다

보잉은 3D프린터로 생산한 부품으로 인공위성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월 21일 보잉의 인공위성 사업 책임자인 폴 로스닉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잉이 3D프린터 기술을 통해 모듈화된 부품들을 생산, 인공위성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뜨거운 온도와 엄청난 압력 등 극단적인 조건을 견뎌야 하는 우주선에 탑재되는 부품까지 3D프린터로 제작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보잉은 이미 3D프린터로 만든 금속 부품들을 항공기에 사용하고 있다. 보잉은 NASA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42억 달러짜리 '스타리니어 캡슐 프로젝트'에 3D프린터 부품을 적용하고, 7인승 '우주 택시'에도 3D프린터로 만든 부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보잉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제작 공장에서 신기술 적용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

### 올해 드론 시장 약 7조 원, 생산량 300만대 전망

올해 드론 시장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60억 달러(약 6조9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드론 생산량도 39% 늘어난 300만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 2월 14일 '드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업용 드론은 개인용 드론보다 시장 규모가 작지만 판매단가가 높은 편이다. 상업용 시장은 비용 절감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사례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추세다. 석유 가스, 에너지, 인프라, 운송 등의 산업용 점검 분야는 큰 성장세를 보였다. 가트너는 산업용 점검 부문이 2020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의 30%를 차지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아마존, 구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배달용 드론은 언론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향후 수년간 드론 시장의 주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5

### 중국, 차세대 군사용 드론 실전 배치 전에 최대수주

아직 실전 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중국의 차세대 무인공격기(UCAV)인 '익룡(영룡)'이 해외로부터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무인공격기 '익룡'이 초도비행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로부터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고 이 무인기의 개발업체인 청두항공기설계연구소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만큼 바이어가 누구인지, 주문 규모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익룡'은 날개폭이 20m가 넘으며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중고도-장거리 무인항공기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만든 'MQ-9 리퍼'의 경우 대당 판매가격이 3천만 달러인 데 비해 '익룡'의 전작은 100만 달러로 가격이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6

### 중국, 보잉 대신 에어버스 사면 미국 일자리 18만 개 증발

중국이 미국 보잉사 대신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면 미국의 일자리 약 18만 개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커위 진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경제학 교수는 지난 2월 22일(현지시각)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중국이 보잉 대신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17만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서비스 업체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 8만5천 개의 직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대두 수입을 통제하면 주요 생산지인 미국 미주리와 미시시피주의 일자리가 10%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국제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낮을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 Fly News



7

### 미국, 대통령 전용기 후보에 B-21 전략폭격기까지 포함

미국의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이 미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 후보기로 제시됐다. 예비에이션 워크, 포플러 미캐닉스 등 미 언론들은 항공 분석가들 사이에서 40억 달러(4조 5천6백억 원)를 웃도는 신형 에어포스원의 후보로 기존보다 작은 B737 기종이나 B-21 전략폭격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1990년부터 취역한 보잉 747-8보다 작은 737기종이나 2020년대 중반에 선보일 노스롭 그루먼 사의 B-21이 차기 에어포스원 기종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문가들은 비용 측면에서 보잉 737이 유리하지만 항속거리가 짧다고 지적했다. B-21 폭격기는 테러리스트의 지대공 위협에 대응한 생존성 측면에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21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8

### 러시아, UAE와 차세대 최신에 전투기 공동개발

러시아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7~8년 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월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업체 로스테흐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사장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IDEX 2018'에 참석, 양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메조프 사장은 차세대 전투기 설계와 시제기 생산을 제외한 '전 공정'을 UAE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개발 기종은 '최신예'로 록히드마틴의 F-35와 F-22 랩터처럼 제5세대 기능을 가질 전망인데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출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한편, UAE는 현재 보유한 러시아제 수호이-27의 대체 기종으로 수호이-35로 도입하기로 로스테흐와 합의했다.



9

### 오스트리아, '전투기 가격 부풀리기' 에어버스 고소

오스트리아 국방부가 유로파이터 전투기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에어버스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지난 2월 16일(현지시각) 전했다. 미카엘 바우어 국방부 대변인은 2003년 유로파이터 15대를 20억 유로(2조4천222억 원)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곧 공개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APA통신은 에어버스가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이 정부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 유로파이터 24대를 구매하려 15대만 샀다.

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유로파이터 구매 계약은 2000년 극우 자유당이 보수 정당인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한 뒤 체결됐다. 일부 정치인들이 구매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독일 뮌헨 검찰은 오스트리아와 별도로 올해 말 사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4

함께 생각해요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역량을 개발하라  
Competence



26

KAI 특색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요?



28

글로벌 스토리  
새로운 역량 개발로  
위기 극복하는  
변신의 귀재 IBM



30

KAI 캠페인  
작은 노력으로  
업무 역량 강화

## Section 2 하나 된 KAI

일할 맛 나는 회사,  
신나는 일터를 꿈꿉니다.  
GWP(Great Work Place) 기업문화로  
KAI는 하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 불만이 있기 쉽다. 조직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 긴장감 없이 느슨하고 한가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다.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회사에서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회사에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퇴근 후 늘 뭔가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혹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은 내가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제대로 단추를 끼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전미옥 마이스토리 대표

#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역량을 개발하라

## Competence



### 단점이 강점을 잉태한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금방 말하지 못한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해도 역시나 금방 말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부끄럽거나 말했다가 괜히 약점이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서다. 대부분 사람은 가진 것 중에서 장점이나 강점이 더 많은데도 몇 안 되는 단점이나 약점을 부풀리는 버릇이 있다. 강점이나 장점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단점만 두드러져 보일 땐 자신감을 잃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부분이 있다. 단점만 떼어내서 바라보면 속이 상하지만, 단점의 이면에는 강점이 함께 숨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룬 어떤 분은 어릴 때 몸이 약했던 게 큰 단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계획성이 생기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하는 힘이 생겼다고 한다.

현실적인 문제 인식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다. 감성과 이성 역시 한 쪽이 강하면 다른 쪽이 약하게 마련이다. 냉정한 성격이 단점이라면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 자기 성격이 장점이 되고, 반대로 감성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자기 성격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장점이 단점의 이면이듯 단점도 장점의 이면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면 단점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자기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는 데 20%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고, 나머지 80%는 장점을 강화하여 강점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 단점은 치명적인 구멍이 되지 않도록 평균선에서 관리하고, 강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되 자신이 하는 일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

자신의 강점이 현재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조직의 핵심 인재가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길이다. 역량이란 성과를 내는 데 직접 관계있는 능력을 말한다. 환경미화원이 토익점수가 970점 이라면 개인적으로 능력일 수는 있지만 그걸 '역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역량은 인재를 선발하거나 양성하고 승진시킬 때 평가하는 공통 기준이 된다.

요즘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토익점수, 봉사활동점수, 석박사 학위 보유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하지 않아졌다. 지원자가 가진 역량이 과연 조직에서 찾고 있는 역량 모델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강점이 업무나 나의 전문성에 활용되어 그게 조직의 성과와 목표에 기여하는 역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면 최고 인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경쟁력이 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이나 기술 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힘을 길러야 한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남다른 기술 노하우 등이 모두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배워라." 이 말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아버지가 대학생이었던 그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김용 총재의 아버지처럼 예전 어른들은 자식들이 '기술자'가 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은 시대와 이념, 국경, 인종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밥벌이가 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살짝 천대를 받았던 시대였음에도 그 생각은 이제 보면 앞서 가는 것이었다. 요즘은 기술이 곧 훌륭한 역량이고 자기 경쟁력이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도 다시 용접 기술을 배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 보면 실감할 수 있다.

핵심 역량은 우월한 능력이나 기술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교집합이 큰 부분에서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잘하기만 해서 는 즐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고 좋아하는

만 해서 는 긴장감이 없고 안주하기 쉽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릴 때다.

### 내 사업처럼 치열하게 남다르게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 하나가 '적당히' '대강'이다. 정확한 계량이나 분석 없이 두루두루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 쓰임도 다양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가는 데 '적당히'해서는 절대 그 창끝이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남과는 다른 뚜렷한 차별화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도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무른 근성,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받는 아무지치 않은 마음, '가만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안일함은 큰 적이다. 특히 우리는 '튀는 행동'을 너무 어려워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그냥 남들만큼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튀지 않고 남다르지 않다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튀거나 남다르게 보이는 그 점이 사람이나 물건의 존재를 익명의 사람들에게 깊이 알리고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남다른 생각의 핵심은 '무엇'과 '어떻게'다. 잘 보이지 않는 실패한 풀이 '포스트잇'로 탄생했다. 아무도 포스트잇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남다른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극적인 물건을 탄생시킨다.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치열함과 발상을 달리하는 특별함이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된 만큼 이제 반복하는 수많은 일은 더 빠르게 자동화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라도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흔한 직장인이 아니라 역량을 발휘하는 진정한 비즈니스맨으로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반기고 혁신적이며 자부심이 강한 모험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한, 기회는 훨씬 자주 오기 때문이다.

#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요?

Competence는 '능숙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재능이나 기능을 익숙하게 만든다는 능숙함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요. KAI 사우들 각자의 역량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그 힘이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나아가는 우리 회사에 또 다른 시너지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자의 특기를 알려주세요.



## 소형헬기구조설계팀 이상봉 연구원 종이로 전투기 만드는 만능 손재주

마음에 드는 전투기를 고른 후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사진을 몇 장 찾습니다. 그런 후 사진을 보면서 스케치북 종이에 전투기 모양을 만듭니다. 물론, 100% 똑같지 않아요. 보통은 이틀에서 사흘 정도면 전투기 한 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전투기를 좋아했던 아나운서에게 소포로 보냈던 추억 아닌 추억도 있네요. 답장은 없었지만요. ^^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녀에게 첫 번째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전투기 모형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최종조립생산팀3직 서준영 기술원 원서 읽기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 형성

특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저만의 자랑거리는 '영문 원서 읽기'입니다. 모국어 서적이 아닌 외국어 서적을 읽고 이해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또 원서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저만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흡수하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양성을 지닌 사람으로 변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 시험교정직 박규태 전문기술원 '자신감의 주문'으로 용기백배

회사 생활에서 저만의 자랑거리는 '자신감의 주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궁금할 법도 합니다. 점점 세상일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볼륨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에 지치게 되면 나약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 자신감을 표현하는 한마디를 던진답니다. "바로 내가 우리 회사의 1%의 기술을 지녔어!" 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감의 주문이야말로 강한 의지와 역량을 깨워주는 저만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KFX제어SW팀 임영우 연구원 전동 휠 타고 앞으로 전진

제 자랑거리는 전동 휠을 잘 탄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인기 있는 전동 이동 수단인 전동 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년째 무사고로 즐겁게 전동 휠을 타고 있습니다. 전동 휠을 타다 보면 균형을 잡고 앞으로 1m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배울 때 몸에 멍이 들었고, 옷이 다 젖을 만큼 땀이 났습니다. 3일 만에 1m를 나아갔지요.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해운대에서 광안리를 지나 서면까지 장거리 라이딩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KAI 사우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 GSE개발팀 이대경 수석연구원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꾸벅 인사 하기

예전보다는 많이 퇴색된 듯하지만 저만의 특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 잘하기'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매치해 외우는 건 덤이지요. 먼저 인사를 하다 보면 사생활이든 업무에서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평소 인사를 잘한 덕분이겠지요. 요즘은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만의 특기라고 하기에는 살짝 어색하지만, 그래도 저의 특기는 인사 잘하기입니다.

**5월호**  
KAI 특특은 GWP 기업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주제 : 함께 일하고 함께 승리하는 기쁨 Collaboration  
· 질문 : 주변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 새로운 역량 개발로 위기 극복하는 변신의 귀재 IBM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만들면서 '빅블루(BIG BLUE)'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 컴퓨터 업계를 지배했던 IBM은 1992년 160억 달러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구원투수로 영입한 CEO 루이스 거스너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핵심 역량 혁신으로 기적적인 회생에 성공했고, 이후 IBM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새로운 역량 개발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장수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글 채희숙 일러스트 레모

##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지 못해 천문학적 적자

1911년 CTR(Computing Tabulating Recording)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24년 사명(社名)을 바꾼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은 쉽게 없는 역량 개발로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 넘는 장수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다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로 핵심 역량을 집중시켜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 결과 '변신의 귀재', '위기극복의 달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IBM의 변신은 1993년 IBM 80년 역사상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한 CEO인 루이스 거스너로부터 시작되었다.

펀치카드 기계로 출발한 IBM은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만들면서부터 '계산을 잘하는 위대한 기계'라는 뜻의 '빅블루'로 불리며 전 세계 컴퓨터 업계를 지배했다. 1980년대 초 미국 경제지 <포춘>이 4년 연속 초우량 기업 1위로 선정했고, 1989년에는 기업가치(시가총액) 541억 달러(약 65조5,313억 원)로 미국 기업 1위에 올랐다.

그러나 1992년 IBM은 160억 달러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고, 1993년 초에는 9분기 연속 적자와 생산설비 40% 축소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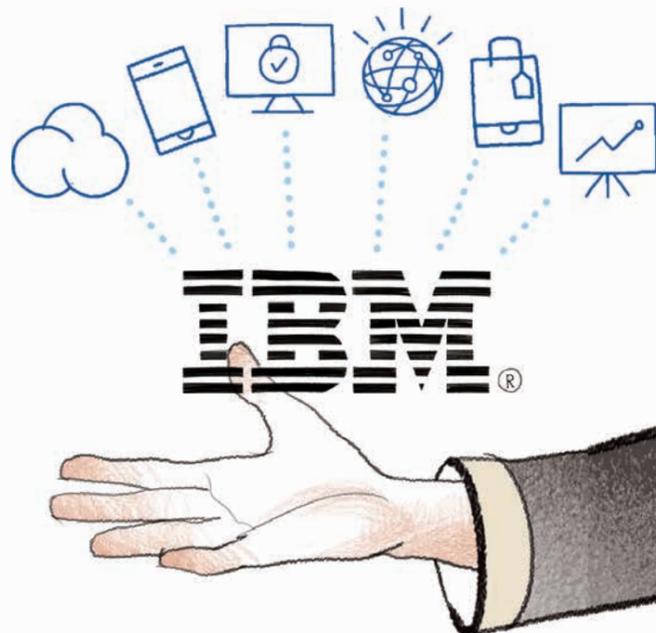
한 해의 총 손실이 80억 달러에 달했고, 시장에서는 '끝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세계 최고라는 타성에 젖어 급변하는 시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드웨어 기술에 집착하다 보니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 운영 시스템인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주도권을 뺏기고 만 것이다.

잭 웰치, 빌 게이츠, 존 스컬리 등 물망에 오른 모든 인물에게 번번이 거절당하던 IBM의 회장 겸 CEO 자리에 취임한 루이스 거스너는 식품 기업인 RJR나비스코와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로 근무했던 전문경영인으로 컴퓨터와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루이스 거스너는 취임 후 제일 먼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인력을 감축하고, 관리자의 수와 단계를 줄이고, 핵심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핵심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업과 자산은 전부 처분했다. 또한 모든 제품별, 나라별 조직을 하나의 글로벌 IBM 조직으로 통합했다. IBM의 핵심역량이 우수한 기술력과 IT 통합서비스 능력, 광범위한 고객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 핵심역량·사업 전략 혁신으로 기적적인 회생

구조조정 다음은 '핵심 역량과 사업 전략의 혁신'이었다. 고객에게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1993년 총 매출의 27%에 불과하던 서비스 사업이 2002년에는 45%를 차지,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인 로터스와 티볼리를 인수해 통합 솔루션 서비스 회사로의 입지를 강화했다.



업무 프로세스는 개방형 표준에 맞게 재구축해 1997년 업계 최초로 e-비즈니스를 선언했다.

2002년 루이스 거스너의 뒤를 이어 CEO 자리에 오른 새뮤얼 팔미사노는 서비스 역량의 고도화로 IBM의 변신을 완성하고 위상을 높인다. 정통 IBM 출신인 그는 IBM의 상징인 PC와 프린터 등 부가가치가 낮은 하드웨어 사업을 매각하고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사업으로 중심축을 바꾸는 등 대담한 경영개혁을 실행, IBM을 IT업계 최고의 고수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7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을 인수·합병한 결과 2001년 총 매출의 65%를 차지했던 소프트웨어·IT서비스 부문 매출이 2011년 83%로 높아졌다.



인터넷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예측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결과 역사상 최악의 적자 행진을 계속하던 IBM은 기적적인 회생을 이루어냈다. IBM은 세계 최대의 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 세계 최대의 기술 회사, 세계 최대 규모의 e-비즈니스 회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를 다시 선도하게 되었고, 위기에 빠진 컴퓨터 회사가 IT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역량을 강화해 재도약한 사례는 경영학 교과서에 단골 사례로 등장했다.

## 18분기 연속 매출 감소, 특허는 24년간 1위

2012년 첫 여성 CEO가 된 버지니아 로메티는 전임자인 팔미사노의 업적들을 실제 지휘하고 관리한 인물이다. 그러나 막상 CEO가 된 뒤로는 매출 감소, 순이익률 감소, 주가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십 년 고객이던 CIA의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도 아마존에 빼앗겼다.

2016년 말 IBM은 18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 다시 위기에 빠졌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트렌드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주저앉을지 모른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IBM은 자사의 기술이 '코그니티브 비즈니스(Cognitive Business)'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자신한다. 인터넷 기술이 e-비즈니스 시대를 열었듯이 현재의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로 인해 앞으로는 '코그니티브 비즈니스' 시대가 열릴 것이고,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이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런 자신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특허 보유량이다. IBM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 속에서도 특허 보유량은 2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8,088건의 특허를 취득해 하루 22건의 특허를 취득한 셈이 되었는데, 이중 인공지능(AI)과 인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특허가 2,700건 이상이다. 클라우드 사업은 매출 면에서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다. 2016년 3분기의 경우 작년보다 44% 증가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문 선두에 올랐다.

IBM의 최대 강점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이다. IBM은 전 세계 8개의 연구소에 3천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24개의 제품 개발 연구소에 12만5천 명의 연구원이 근무 중이다. 왓슨연구소는 5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대공황을 비롯해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역량 강화로 위기를 탈출해온 IBM이 이번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은  
노력으로  
업무 역량  
강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



매너는  
비즈니스의 필수



메모  
잘하기



10년 후  
미래를 생각하기



업무에 관한  
책 읽기



32  
사회공헌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34  
KAI 패밀리  
아버지 "Fly Together"  
아들아 "Happy Together"



38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바다로 나오니  
산이 보이네



40  
나의 여행 이야기  
지구 한가운데  
광활한 자연



44  
세대공감 KAI  
괜찮아  
만우절이잖아



48  
문화 광장  
봄과 함께 들려온  
공연 소식

**Section 3  
행복한 KAI**

가족은 물론 동료와 이웃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더 행복한 KAI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KAI 나눔봉사단이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Doe- a deer, a female deer.)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이 예비에이션센터를 가득 메운다.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콧노래가 흥얼거려 노래의 근원지를 따라가 보았다. 그곳에는 하얀색 단복을 예쁘게 맞춰 입은 어린이들이 가득했다. 어린이들의 행복한 음색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던 현장,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속으로!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 사천시 최고의 합창단을 꿈꾸며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KAI 예비에이션센터 4층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이었다.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정서순환과 자기 표현력, 낮은 자존감을 회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KAI 나눔봉사단의 사천 지역 '희망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합창단원은 사천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아동 216명 중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50명의 아이로 이뤄졌다.



### Mini interview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조경옥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오신 KAI 나눔봉사단 여러분을 비롯한 봉사단 여러분, 내외빈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합창단원으로 명예를 갖고 꿈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천재영 어린이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의 권유로 합창단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노래 연습하기 위해 모이곤 하는데 그 순간이 참 즐겁습니다. 합창단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 최종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즐겁게 노래하는 어린이들을 보며 창단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시끌벅적한 리허설이 끝나고 5시 30분이 되자 창단식이 시작되었다.

많은 복지기관이 바라고 바랐던 합창단의 창단식을 축하하기 위해 사천 시내 유수 기관 임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창단식에는 사천시 송도근 시장, KAI 나눔봉사단 사무국장 구관혁 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근용 본부장을 비롯해 복지센터의 센터장, 선생님, 학부모들이 참여해 합창단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다. 송도근 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근용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천시를 대표하는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의 축사를 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사천의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단식이 있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KAI 나눔봉사단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행복을 부르는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KAI 나눔봉사단 사무국장 구관혁 실장은 창단식 내내 재잘거리는 어린이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축사에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노래 부르며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한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KAI 나눔봉사단은 어린이들의 행복을 바라며 이날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노래하도록 후원금도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이 끝나자 이날의 대미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하얀색 단복을 맞춰 입은 어린이들의 공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박수 소리에 기운이 난 듯 관람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응답했다.

KAI 나눔봉사단과 여러 기관 대표의 축하를 받은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은 경상도를 대표하는 프로야구단, 농구단의 경기에서 공연하며 입지를 다져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공연마당, 9월 말 지역아동센터연합 발표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노래하는 등 주변의 이웃들에게 행복의 노래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2018년에는 전국합창단대회에 참여도 계획되어 있다. 모두의 축하 속에서 마무리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길 응원한다.

고정익운영기술팀  
황성욱 사원과 아버지의 경비행기 체험

## 아버지 “Fly Together” 아들아 “Happy Together”

두 남자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파란 하늘에 경비행기를 타고 높이 더 멀리! 하늘을 나는 이 두 남자를 누가 부자(父子)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데면데면하고 어색한 보통의 부자와는 다르게 친근함이 물씬 풍기는 '황 부자'를 만났다. 이렇게 좋은 날, 경비행기 체험에 나선 황 부자의 Fly Together, Happy Together.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I believe  
I can Fly*

### 아버지, 비행기 타러 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오늘의 주인공 고정익운영기술팀 황성욱 사원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밖에 없다고 전한다. “아버지는 참 '호인' 같은 분이세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사에 긍정적이신 분이죠.” 호인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경비행기 체험에 임한 이유를 물으니 황성욱 사원은 2가지를 꼽았다.

“제가 KAI에 다니는데 아버지가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도 없고 해서 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도 타보지 못한 아버지가 이내 마음에 걸려 'KAI 패밀리'의 경비행기 체험을 보고 서둘러 접수했다. “체험 전날 바로 접수했거든요. 정말 운 좋게 선택되어 기쁘네요. 지금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 중인데 위험하다고 걱정하시던 아버지에게 걱정을 덜어 드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날아올라, 저 하늘

살갑게 “아버지, 아버지”하며 아버지를 챙기는 황성욱 사원. 경비행기를 아버지와 함께 돌아보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아버지에게 알려준다. “아들 덕분에 오늘 비행기도 타고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 황학선 씨는 잔디 위에 대기한 경비행기가 신기한 듯 바라본다. “어제는 정말 추웠거든요. 바람도 불고 날이 좋지 않더라고요. 모처럼 성욱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날이 추우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부자의 뜻깊은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듯 오늘 하늘은 참 유난히도 맑았다.

간단한 조작법과 설명을 들은 부자는 차례대로 하늘을 날 준비를 했다. 두 명밖에 탑승할 수 없는 경비행기의 특성상 안전을 위해 강사분도 함께 해야 하기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하늘을 날아볼 기회



를 양보했다. “아버지, 먼저 타고 와. 재밌을 거야.” “응, 성욱아. 아빠 타고 올게.” 아버지가 타 있는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아들. 참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해지는 풍경이다.

상공에서 비행 중인 아버지는 무전기로 베이스 캠프에 있는 아들을 향해 “성욱아,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탓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고맙다.” 이 한마디가 선명하게 들리니 아들은 뿌듯한 미소를 감출 수 없다. “응, 아버지. 잘 타고 와.”

**꿈은 이루어진다**

“제 꿈이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색약이 있어서 비행기 조종사의 꿈이 좌절되었죠. 원래 그 꿈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정말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상심이 큰 아들에게 ‘멘토’가 되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KAI를 알게 되었고, 아들은 KAI 사원으로 입사해 비행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비행기가 그렇게 좋으면 꼭 조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며 ‘비행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과를 지원했고, 우리 회사를 알게 되었죠. 지금은 고정익운 영기술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라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했더니 모든 게 물 흐

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단다. 살아가면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황성욱 사원에게 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멘토가 된 셈이다.

**꽃길만 걸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걸어오며 목격한 한마디를 내뱉는다. “아빠, 성욱아 고맙다!” 짧게 던진 한마디에 아버지의 감정이 묻어나오는 건 왜일까. “정말 좋았어요. 성욱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타분 사람만이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비행기 탑승에 나선 아들과 포옹을 나누며 진심이 듬뿍 담긴 소감을

전했다. “비행기 조종사는 되지 못했지만, KAI에 입사해서 다른 방향으로 비행기를 접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참 다행이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성에 맞아서 일을 재밌어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동료들한테 잘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행기를 타고 좋은 경치도 보고, 이 모든 게 아들 덕분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고마운 마음을 서로의 ‘덕’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씨가 빠다 박은 영락없는 부자였다. 파란 하늘, 따뜻한 봄 햇살, 흐드러지게 핀 매화 꽃. 부자가 함께하기에 좋았던 이 날은 부자의 기억 속에 최고의 순간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매화꽃 길 따라 내딛는 한 발 한 발에 오늘을 아로새기며 돌아가는 부자의 뒷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삼진강비행전문학교**  
삼진강비행전문학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삼진강에 있다. 비행 교육은 물론 경량항공기 수입, 조립, 판매 등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위한 항공캠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조종사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니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을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

-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115-16
- ☎ 070-4414-5789
- 🚌 비행체험(주중) A코스 10~15분 6만 원 B코스 25~30분 12만 원

▶ 광양 매화마을에서 그들은 다정히 산책을 즐겼다.





KAI 카약 동호회

# 바다로 나오니 산이 보이네

차가운 바람이 물러나고 따스한 햇볕이 내려 쬐던 3월의 봄날. 겨우내 창고 깊숙이 묻어뒀던 카약들이 진주 남강에 일렬로 줄을 서서 처음으로 별을 쬐다. 빨강, 노랑, 주황 강렬한 색의 카약들이 늘어진 곳에서 KAI 카약 동호회 회원들을 만났다.

글 이호정 사진 정우철

무한대의 매력 속으로

새로움은 시작과 맞닿아 있다. 시작은 희망이며, 설렘이다. 이제 생긴 지 1년 남짓한 KAI 카약 동호회는 시작, 희망, 설렘을 모두 품은 신생 동호회다. 지난해 2월 말, 봄과 함께 시작된 카약 동호회는 따뜻한 봄날인 지난 3월 첫째 주에 동호회가 생긴 이래 두 번째 개수제(開水第)를 진행했다. 웅크린 몸으로 햇볕 한 번 보지 않고 창고에만 있던 카약들이 처음으로 물과 만나는 날.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는 최종조립생산팀2작2조 김승구 조장의 얼굴은 살짝 들떠있다. "올해 처음으로 카약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날이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카약 동호회 운영자인 장비개발팀 조철민 차장은 자신의 붉은 웃만큼 상기된 얼굴로 자기 카약을 만지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접할 때 카약 가격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다가 수작업으로 카약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제작했습니다. 직접 다듬어 만들어서인지 더 정이 갑니다."

두 사람 모두 카약을 우연히 시작했다고. 김승구 조장은 가족들과 함께한 유원지에서, 조철민 차장은 남해로 간 팀 야유회에서 카약을 접하고 그 매력에 빠졌다.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면 과장일까. 이들이 말하는 카약의 매력은 끝이 없다. "우리는 늘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육지에서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보는 산은 정말 아름답지요. 안개가 낀 날에는 카약을 타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황홀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김승구 조장은 바다에서 즐기는 카약의 즐거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조철민 차장이 말하는 카약의 매력은 협력이다. "카약은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즐길 수 있습니다. 조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앞뒤로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다 보면 더욱 돈독해져요.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다 보면 협동심도 커집니다."

그들은 카약의 매력을 뽑으려면 수도 없다고 뿌듯한 얼굴을 내비쳤다.

최종조립생산팀2작2조 김승구 조장

두드려줘, Knock Knock

바람이 심하지 않은 날이면 계곡, 바다, 강 등 장소, 시간대를 막론하고 카약을 즐길 수 있다. 유독 날이 좋았던 개수제 당일엔 올해 처음으로 노를 젓기 적당한 날이었다. 카약에 앉은 조철민 차장은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노를 힘차게 저으며 남강 위를 유유히 헤쳐나갔다. 이에 뒤질세라 김승구 조장의 빨간 카약도 남강 위를 우아한 백조처럼 스치듯 지나갔다. 함께 체험하는 사천피싱카약 회원들도 남강 위에서 자유롭게 노를 저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를 젓다 보니 어느덧 얼굴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생각보다 운동량이 커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보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김승구 조장이 남강에 손을 놓으며 파도를 느껴보라고 했다. 손을 스쳐 가는 강물은 그저 강에 앉아서 담그는 물과 느낌이 달리 간질간질했다.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명조끼와 안전장비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처음 해보는 경험은 걱정이 앞섭니다. 강한 파도때문에 겁을 먹기도 하지만 한두 번 경험하면 그 걱정이 괜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체험을 해보세요. 5월에 카약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남해에서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AI 사우들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4월에는 섬진강투어를 떠날 예정인 카약 동호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무궁무진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과 함께할 사람들은 주저 없이 노크를 해보자. 혹시 아는가. 인생 최고의 경험이 펼쳐질지.

장비개발팀 조철민 차장

KAI 카약 동호회

설립 연도 : 2016년  
인원 : 약 30여 명  
모임 : 매주 주말 정기 모임  
활동 내용 : 남강, 남해 등 바다 피싱카약, 무인도 캠핑 등





KFX항전SW팀 손소만 연구원이 추천하는 호주 울룰루 여행기

## 지구 한가운데 광활한 자연

일본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룰루(Uluru)는 그런 곳입니다. 호주에서도 아웃백이라고 불리는 오지, 세상과 가장 동떨어져 있을 법한 이곳에 세상의 중심이 있습니다. 백만 년의 침식이 만들어낸 독특한 형태의 협곡 킹스 캐니언(Kings Canyon), 빗방울이 맺힌 아름다운 카타츄타(Kata Tjuta) 산길을 거쳐 울룰루로 향하는 길, 2박 3일의 여정은 자연의 색과 신비에 눈뜨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게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궁금한 KAI 사우에게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울룰루에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글 KFX항전SW팀 손소만 연구원

울룰루에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선이 닿는 공항에서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ins)로 가는 비행기를 타거나 다윈(Darwin)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버스는 스무 시간이 넘게 타야 하니 개인적으로는 항공편을 추천합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는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필요 물품 준비를 하고 울룰루 바위로 갈 수 있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를 거쳐 간다면 근처에 있는 카타츄타산, 킹스 캐니언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차를 렌트해 자유여행을 하거나 투어를 신청해서 세 개 코스를 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투어를 신청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투어(The Rock Tour) 업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침낭투어, 캠프투어, 호텔투어 등 선택권이 제법 다양합니다. 저는 300불(약 30만 원, 2013년 기준)을 내고 2박 3일간의 침낭투어를 결정했습니다. 코스 순서와 일정은 투어 업체와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에 맞추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가는데, 일행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통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호주의 12월 온도는 40도를 웃돕니다. 그래도 습하지 않아 한국의 여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낮이 될 때까지 한참 가면 킹스 캐니언에 도착합니다. 가는 도중에는 점심을 먹고 기념품 가게에도 들렀더니 도로 위를 활보하는 호주의 동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캥거루보다는 왈라비와 소가 많았습니다. 킹스 캐니언에 도착해 본격적인 등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킹스 캐니언은 수백만 년 동안의 침식에 깎인 독특한 형태의 협곡과 바위가 절경을 이룹니다. 돌산과 나무만 있는 것 같지만 희귀한 식물, 조류, 파충류가 수십 종씩 서식하는 사막의 안식처입니다. 실제로 등반을 하는 동안, 작은 도마뱀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함께 등반하는 기분이 들 정도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케이크를 칼로 자른듯 반듯한 절벽과 동그란 모양의 돔으로 생긴 돌산들이 많습니다. 장년기 지형(침식유형)에서 침식이 끝난 지

형)에다 기후가 다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는 지평선은 '지구가 동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끝없는 평원을 자랑합니다. 등반 중 틈틈이 가이드가 킹스 캐니언의 생성 원인과 식생에 관해 설명해주니 사전 지식이 별로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킹스 캐니언을 등반할 때는 돌이 무척 뜨거우니 깔고 앉을 수건과 차가운 물이 필수입니다. 킹스 캐니언을 지나 향한 곳은 화장실과 편의점이 있는 캠핑장입니다. 여기서 맥주를 사고 근처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간이 지붕만 덩그러니 있는 공터에 도착합니다.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샛길로 빠지더니 '여기가 오늘의 잠잘 곳입니다'라는 가이드 말에 약간 당황했지만,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는 사이 금세 즐거워졌습니다. 메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서양식 짬뽕탕 같은 요리인데 생각보다 먹을 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루 사이 친해진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하늘의 별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투어는 다시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목표는 카타츄타 산. 지표로부터 약 300m 높이의





▲ 울룰루

울룰루 등산로 ▶

이 산은 울룰루와 함께 지각 변동에 의한 융기 현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가 몸으로 재현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카타츄타 산은 짧은 코스, 긴 코스로 선택해서 산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긴 코스로 갔습니다. 긴 코스인 만큼 더 많은 호주 오지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땐 비가 내렸습니다. 매끈한 표면 사이사이 구멍이 송송 뚫린 이 거대한 돌산에 비가 내리니 빗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산 표면에 맺혀서 마치 산 전체가 눈에 덮인 듯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런 카타츄타를 뒤로하고 최종 목적지, 울룰루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울룰루에 도착하면 입장표(투어 포함)를 받는데 울룰루를 완전히 나갈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

룰루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간이 되어버려서 울룰루가 보이는 일몰 포인트에서 저녁을 지어 먹으면서 일몰에 따라 달라지는 울룰루의 색상을 감상했습니다.

마지막 날 드디어 울룰루를 가까이 보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울룰루를 등반하고 돌레를 돌아볼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비가 와서 위험해 등반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산을 신성시하는 원주민은 올라가지 말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2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울룰루 돌레를 돌았습니다. 가까이 보면서 그곳 원주민들의 생활을 듣고 돌산의 멋진 자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돌산 하나의 돌레를 걷는데도 풍경은 계속 바뀌었습니



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자연의 신비함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화려한 것이 없지만 눈을 땔 수 없는 곳입니다. 원주민 마을에 들러 기념품을 사고 복귀하는 길로 투어가 끝났습니다.

울룰루를 뒤로하고 앨리스 스프링스 공항에 내려서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길. 평생 언제 다시 이 광활한 호주의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를 괜스레 생각해 봅니다. 울룰루에서의 기억은 세상의 크기를 아득하게 만듭니다. 돌아갈 때마다 지금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떠올리게 충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카타츄타

▼ 킹스 캐니언



## 울룰루 여행 코스



### 앨리스 스프링스 Alice Springs

Course 01

규모 해발고도 약 540m, 면적 149km<sup>2</sup>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주

동서로 뻗어 있는 맥도널 산맥 가운데 있는 도시. 대륙 남안의 애들레이드와 북안의 다윈을 잇는 국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남쪽에서 올라오는 철도의 종점이기도 하다. 근방의 목축업, 광업, 관광 중심지이자 '붉은 사막의 심장부(울룰루)'로 가는 관문.



Course 02

### 킹스 캐니언 Kings Canyon

규모 깊이 100m, 협곡의 면적 1,349km<sup>2</sup>

위치 와타르카 국립공원

깊은 협곡으로 이곳의 절벽은 주변의 평지에서 조지길 산맥의 서쪽에 있는 고원까지 올라간다. 해가 뜨고 질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 식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하나이자 주변 사막을 피해 온 동물들의 안식처로 희귀식물 60종이 자생하고 조류 80종, 파충류 36종과 포유류 19종이 서식한다.



### 카타츄타 Kata Tjuta

Course 03

규모 해발고도 1,069m

위치 울룰루 서쪽 약 30km 지점

'카타츄타'라는 이름은 '수많은 머리'라는 뜻이다. 주요 돔과 '바람산책 계곡' 주변까지 7km 도로를 따라 이 지역을 감상할 수 있다. 거대한 붉은 암석이 36개, 그보다 작은 돔과 능선이 60개 이상 분포한 바위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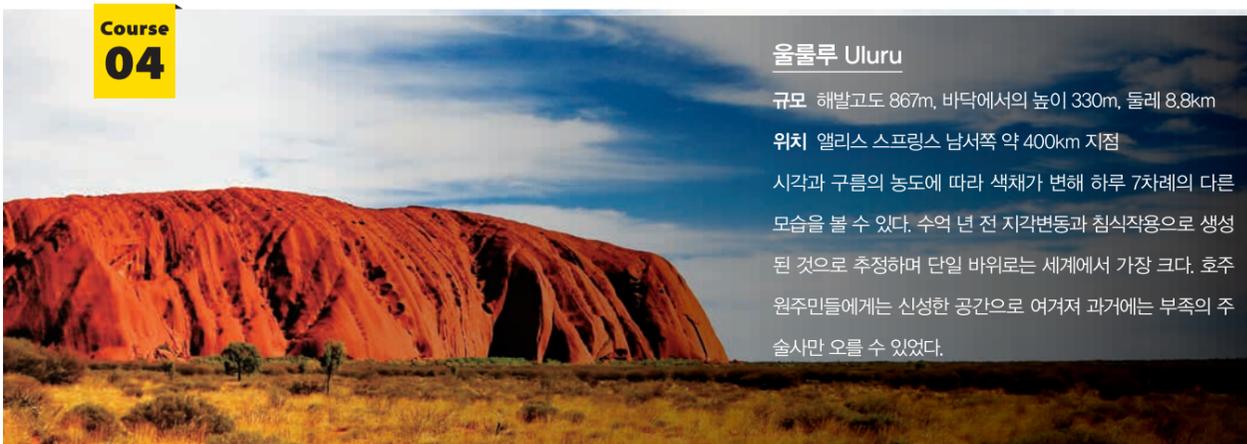
Course 04

### 울룰루 Uluru

규모 해발고도 867m, 바닥에서의 높이 330m, 둘레 8.8km

위치 앨리스 스프링스 남서쪽 약 400km 지점

시각과 구름의 농도에 따라 색채가 변해 하루 7차례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억 년 전 지각변동과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며 단일 바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호주 원주민들에게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져 과거에는 부족의 주술사만 오를 수 있었다.



# 괜찮아 만우절이잖아

글 정영아 일러스트 이보라

국민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우리 반에 분실물이 생겨서 반 아이들 모두는 길쭉한 종이를 입에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면 종이 가 짧아진다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라고 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지만 전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종이가 짧아지면 어쩌나, 눈을 감고 있는 5분여의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고, 결과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던 말이 "공부는 못 해도 되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이고, 거짓말을 하면 정말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 년 중 딱 하루, 4월 1일 만우절은 예외였습니다. 그날은 당당히 악동이 되어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누군가를 골탕 먹이지 못하면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애석하게도 만우절을 통쾌하게 보낸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전 거짓말에는 소질이 없었나 봅니다. 얼굴에 티가 다 난다잖아요.

### 고백인 듯 고백 아닌 고백

딱 한 번 설레는 만우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 고백은 늘 망설여지게 마련이지요. 짝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3학년 때 인천에서 전학 온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말투며, 하얀 피부가 참 인상적이었죠. 정확한 계기는 모르겠지만, 그 애가 수업 시간에 '청개구리' 연극의 주인공으로 저를 추천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후 별다른 사건 없이 졸업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인근 남학교 축제에서 재회했습니다. 그 애가 먼저 인사를 했고, 전 놀랐죠. 그때부터 저의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손수 만든 초콜릿을 선물했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우절이 다가왔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교 후 그 애가 다니는 검도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난생처음



고백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차마 말로는 못하고 편지로 대신했죠. 얼마 후 길에서 우연히 또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만우절인 거 알제?" 그 말과 함께 첫사랑을 접었습니다. 몇 년 뒤 '절친'을 통해 다시 그 친구 소식을 접했을 때 전 친구에게 그 애가 나의 첫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고, 만우절을 핑계 삼아 고백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 사제 간 문턱을 낮춘 하루

가장 즐거웠던 만우절 추억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중학생 시절을 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 추억이 많았거든요. 1학년 때는 2학년 같은 반 선배들과 교실을 통째 바꿔 선생님을 골탕 먹였고, 인기가 많았던 총각 선생님 수업 전에 교탁 안에 고추를 넣어두고서는 인사 대신 "선생님 고추 보여주세요"라는 말로 선생님을 당황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생님 별명이 '조다쉬'였어요. 키도 180센티가 넘었지만 얼굴도 길어서 당시 유행했던 패션 브랜드인 '조다쉬'로 불렸습니다. 그날 조다쉬 선생님의 붉게 변한 얼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없을 리 만무하죠. 물상 선생님이 대표적이었습니다. 40대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고단수였습니다. 일단 애플타이저로 교실 문 위쪽에 칠판지우개를 설치해줬는데, 미리 간파한 선생님은 교탁봉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우리가 아니죠. 다들 책상을 돌려 선생님께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하루 정도는 함께 놀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물상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수업을 진행했고, 결국 우리는 책상을 제대로 정렬한 후 수

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수업을 일찍 마쳤던 것 같습니다. 또 학년끼리 반을 바꾼 어떤 반에서는 호랑이선생님으로 유명했던 체육 선생님 수업이라 학생들 전원이 벌칙으로 운동장을 돌아야 했던 해프닝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만 납니다. 한창 놀고 싶었던 말괄량이 여중생이었으니 가능했던 추억이겠지요.

### 벌써 14년, 여전히 거짓말 같은 이별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패왕별희> 재개봉 소식을 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했지만, 영화를 제대로 본 것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해화동 동승아트를 지하 매장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살 정도로 열혈팬이었습니다. 영화 자체만으로도 명작임이 틀림없지만, 이 영화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2003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생을 마감한 장국영 때문입니다. 고층 호텔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는 믿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벌써 14년이네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는 격동기 중국에서 파란만장하지만 끝내 생을 버티고(<패왕별희>의 두지), 이구아수 폭포까지 가는 길 내내 연인 아취에게 투정을 부리고(<춘광사설>의 보영),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부터 1분간 수리진과 함께했고, 홀로 거울 앞에서 맘보춤을 추기도 합니다(<아비정전>의 아비). 영화 속에서 장국영은 지금도 살아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팬에게는 여전히 첫사랑입니다. 2003년 4월 1일 이후 제게 만우절의 의미가 달라진 까닭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만우절은 돌아올 것이고, 저는 조용히 그의 영화들을 보면서 추억에 젖을 겁니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 만우절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4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만우절. 서양에서는 All Fools' Day라 불리는 만우절은 바보가 되어도 괜찮다는 공식 아닌 공식적인 날입니다. 으레 3월 31일이 되면 다음 날이 만우절임을 알고 친구를 골탕 먹일 준비를 하다가 도리어 당하기도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KAI 사우들의 추억 속 만우절은 어떠했는지요? 바보가 되었고 바보로 만들었던 그 시절의 추억담을 공유해봅시다.



40대

회전익력팀 김학준 차장

## 특명! 학교를 바꿔라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나란히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우절에 남학교와 여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바꿔서 앉아 선생님들을 놀렸지요. 어린 시절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30대

생산관리팀 김선옥 사원

## 선생님 놀래키기. 작전 성공!

중학교 때 다른 반 아이들과 반을 바꿔 앉아 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은 깜짝 놀라 하셨지요.

50대

GSE개발팀 이대경 수석연구원

## “우리 학교 옆에 여학교가 온대~”

‘알고도 속는다’는 말처럼, 만우절이란 걸 잠깐 잊고 있던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고등학교 옆에 여자 중학교가 들어온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한껏 설렸습니다. 물론, 친구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지요. 여자 중학교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약 6년이 지난 후에 말이죠. ^^ 그래도 만우절 장난이 현실이 되긴 했네요.



KFX항전SW팀 남희한 선임연구원

30대

## 거짓말처럼 그렇게...

2003년 4월 1일 아침에 장국영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의 우상이었던 장국영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만우절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자살이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뉴스가 연신 쏟아지면서 안도감이 슬픔으로 바뀌는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장국영의 사망한 날이 만우절이라 고인의 죽음 자체가 거짓이 되었던 조금은 황당한 사건이었지요. 저 역시 반신반의했던 사건이라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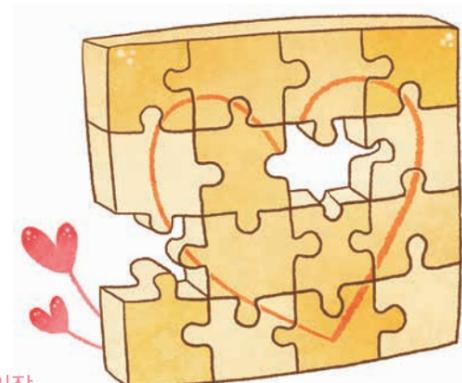


30대

전기체해석팀 김기원 선임연구원

## 심쿵, 당했다

많이 순수, 아니 순진했던 고2 시절,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던 학원 선생님께서 갑자기 고백하시더군요. ‘그동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학생이라는 입장 차이와 나이 때문에 숨겨왔지만 용기 내서 고백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동조로 저는 그 고백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고민 끝에 힘겹게 대답을 하려는 순간, 친구들과 그 선생님이 큰소리로 웃는 것이 아닙니까. ‘아차, 크게 한 방 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어언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종종 친구들에게 안줏거리로 오르는 참 당황스럽고 민망한 추억이네요. ^^



5월호

‘세대공감 KAI’는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주제 : 가족
- 질문 : 가족과 재미있었던 추억은 무엇이 있나요?

# 봄과 함께 들려온 공연 소식

따스한 봄별이 긴긴 겨울을 밀어내며 부쩍 날들이 계획이 많아지는 요즘,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문화 충전의 기회에 마음은 벌써 완연한 봄이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있는 뮤지컬과 콘서트부터 환상의 마술쇼, 청춘을 만끽할 수 있는 봄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전한다. 봄기운에 설레는 KSI 가족의 감성을 예술과 함께 충전해보자.

글 조희진



레전드 뮤지컬, 10주년을 맞이하다  
뮤지컬 <쓰릴 미>



한국에서 2007년 초연을 시작해 뮤지컬 마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스테디셀러 뮤지컬의 행보를 이어온 <쓰릴 미>가 서울 백암아트홀에서 10주년을 맞이한다. <쓰릴 미>는 단 1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탄탄한 음악과 심리 게임을 방불케 하는 남성 2인 극의 명확한 갈등 구조로 마니아들의 디테일한 해석을 끌어내며 매 시즌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밀도 높게 표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전개와 강렬한 반전, 배우에 따라 달라지는 두 등장인물의 관계와 팽팽한 긴장감은 강렬한 에너지로 객석을 압도하고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 1 백암아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 2 2월 14일 ~ 5월 28일(4차 티켓 오픈 3월 24일 ~ 4월 16일)  
평일(화~금) 오후 8시 /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시, 6시 / 월요일 쉼
- 3 02-559-1333



워너가 발굴한 스타의 첫 번째 아시아 공연  
베아트리체 라나 피아노 리사이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협업한 데뷔 음반으로 파란을 일으키고 스타로 발돋움한 피아니스트 베아트리체 라나가 아시아에서 공연을 펼친다. 리카르도 사이, 주빈 메타, 트레버 피노크 등 거장이 지휘하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실력을 입증받고 있는 그녀의 첫 번째 내한공연 장소는 통영국제음악당이다.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메인으로 바흐, 드뷔시, 루카 프란체스코니 신작까지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1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경남 통영시 큰밭개1길 38)
- 2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 3 055-650-0400



이은결의 환상 마술쇼  
THE ILLUSION



이은결의 20년 내공을 총 집약한 국내 최대 규모의 퍼포먼스로 초연 당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연일 기립박수를 받으며 각종 언론의 리뷰와 호평을 받았다. 내용과 규모 면에서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 단순히 마술의 신기함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는 '매직쇼'를 넘어 주제의식을 담은 하나의 작품이다. 특히 대형 팝스타의 쇼 매직 디자인 및 연출가인 돈 웨인이 아트디렉터로 참여해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마술사들 그리고 장인들과의 협업으로 수많은 상상을 실현시키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 낸다.

- 1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 2 4월 14일 ~ 4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 일요일 오후 2시
- 3 051-950-6500



설레는 4월 하루쯤은 청춘처럼, 청춘담게!  
부산 울트라 청춘 페스티벌



'청춘, 정말 찬란한 거 맞나요?' 누구보다 빛날 것 같은 청춘, 하지만 잔인한 계절 4월을 보내고 있을 청춘들을 위한 뮤직페스티벌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맞닿은 공연장에서 봄을 느끼며 뛰어놀도록 청춘들을 초대한다. 인기 가수 정준영, 불발간 사춘기, 데이브레이크, 김나영 등이 출연해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바다의 도시 부산에 걸맞은 탁트인 공간과 그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 전국 유명 푸드트러들이 모여 선보이는 먹을거리, 놀 줄 아는 관객들과의 어울림은 청춘들을 위한 최고의 힐링 타임을 선사할 것이다.

- 1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광장 야외 특설무대(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206)
- 2 4월 22일 오후 6시
- 3 051-637-4578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10시 전에 퇴근이 어려웠던 남편을 보기 힘들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KAI 히스토리'를 보며 그 당시 남편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고 회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패기 있던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가정에 큰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KAI 직원분들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양윤화 독자(경남 진주시)

끊임없이 이어지는 KAI 나눔봉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참으로 멋집니다. 처음 접하는 봉사는 어렵지만 그들과 한 번 어울리면 참가자에게 더 큰 감동이 돌아옴을 알게 됩니다. KAI 직원분들이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서로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나의 여행 이야기'에서 다녀온 매물도 편을 보니 20년 전 그곳에 다녀온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시절 가슴 속에 잠자는 추억 속의 나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그곳으로 저를 띄워 봅니다.

정경진 독자(경남 창원시)

이번 호는 특별히 옛 생각이 많이 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KAI 히스토리'에서 T-50 내용과 낯시동호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KAI 히스토리'의 T-50 부문은 긴장과 열정 속에서 업무를 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초도비행 완료 후의 기쁨은 아직도 마음속 깊이 짙하게 남아있습니다.

김영석 차장(회전익사업관리3팀)

현재의 KAI와 T-50 항공기가 있기까지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력, 피와 땀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더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선배님들처럼 더욱 멋지게 KF-X를 역사에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달콤 쌉싸름한 미팅의 추억'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청년인 저에게 미팅과 이성애에 대한 감정은 낯설고 또한 설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년, 소녀가 만나면서 한 커플이 되고, 결혼에 골인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이 칼럼은 설렘, 호기심, 신비로움 등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임영우 연구원(KFX제어SW팀)

'KAI히스토리'가 나 자신의 히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KT-1, T-50 개발부터 양산 수출까지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미팅의 추억' 지난간 추억을 생각하게 합니다.

황광희 전문기술원(생산지원직)

본부별 사내 기자단

- 전략기획본부 MRO준비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 재경본부 자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 국내사업본부 회전익사업관리2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 개발사업관리본부 개발사업기획팀 김미영 사원 055-851-1578
- 고정익개발본부 T-50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팀 노나영 선임 055-851-9140
- 대전연구센터 우주사업팀 박용현 사원 055-851-6737
-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장재완 부장 055-851-9353
-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선임 055-851-2867
-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QUIZ



2004년도 우리의 어깨를 당당하게 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의 APT사업처럼 우리 회사의 큰 디딤돌이 되었던 사업.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KAI 히스토리' 중에서)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엮서 또는 이메일(hybae@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KAI의 소식을 반응형 웹진에서 만나세요!



KAI 사보 <Fly Together>를 반응형 웹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Fly Together> 표지 또는 아래의 QR코드를 검색창에 갖다 대면 웹진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더 편리하게 바뀐 웹진 <Fly Together>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PC나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kaiwebzine.com 입력하면 바로 웹진 <Fly Together>를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보 앱을 설치하세요

- 안드로이드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폰 생성 완료
- 아이폰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홈 화면 추가' 클릭하면 아이폰 생성 완료

웹진 이벤트

휴대폰에 사보 앱을 설치한 후, 4월 호(Vol.208)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나 사진을 캡처해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 상당)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대상 전 직원  
신청기간 4. 5(수)~4. 11(화)  
신청방법 모바일 사보 화면을 캡처해 기업문서팀 (배화윤 차장 hybae@koreaaero.com)에 전송

